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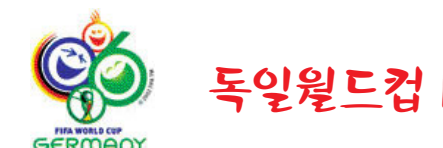


그래! 바로 그거야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축구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축구국가대표팀 미니게임에서 김두현의 측면돌파에 이은 슈트를 아드보카트 감독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드보 “과감한 슈팅”

“원거리든 중거리든 때려라”... 공격축구 강조



독일월드컵 D-20

19일 오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장.

아드보카트 감독이 갑자기 목청을 높였다. 골키퍼를 포함해 5명씩 세 패로 나누어 스몰사이드 게임 슈팅 훈련을 하던 도중이었다.

여섯 번째 게임에서 적색 조끼를 입은 박주영(FC서울)이 문전으로 돌파하다 찬스를 잡았다. 박주영은 그러나 슈팅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듯 불을 한 번 더 토크하고 끝냈다. 수비수가 바짝 붙는 바람에 기회는 날아갔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거의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굵고 큰 목소리로 “왜 슈팅 타이밍을 놓치지느냐”고 다그쳤다. 터치라인 쪽에서 있던 아드보카트 감독은 화가 난 듯 얼굴을 붉히며 몇 발짝 뛰쳐나오기도 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갑작스런 반응은 스탠드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천안 나사레대학 장재우 학생들과 취재진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아홉 번째 게임에서 박주영이 다소 먼 거리에서 중거리 땅볼 슈팅을 날리자 이번에는 감독의 입에서 칭찬이 터져나왔다.

비록 슈팅은 골 포스트를 빗나갔지만 아드보카트 감독은 “베리 굿!”을 연발하며 박

수까지 쳐다왔다. 박주영은 11번째 게임에서 드디어 골을 넣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다른 선수들을 향해서도 설책이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다. 과감하게 중거리 슈트를 때려야 하며 겁없이 질책이 터져나왔다. 불을 빼앗겼을 때 빨리 수비로 전환하지 않고 미적거려도 마찬가지였다.

“때앗가지 마! 때앗가지 마!” 전담 통역 박일기씨의 목소리로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내 축구 철학은 토타르의 창시자이자 스승인 리누스 미헬스 감독의 영향을 받았고 그 핵심은 공격 축구’라고 누누이 강조해 온 아드보카트 감독의 고함 소리 앞에서 태극전사들은 ‘감독 속으로’를 외치고 있었다.

박주영·백지훈·김진규 최우수신인 후보 올라

FIFA, 21세이하 40명 선정

아드보카트호의 박주영과 백지훈(이상 서울), 김진규(이와타)가 2006독일월드컵축구 최우수신인 후보에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24개국의 21세 이하 선수 가운데 21개국 40명을 후보로 선정했으며 대회 기간 인터넷(www.fifaworldcup.com) 팬 투표 등을 통해 제1회 수상자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길레트가 후원하는 최우수신인(Gillette Best Young Player Award)은 이번에 신설됐다.

FIFA 테크니컬 스타디그림(TSG·팀장 헬거 오지예크)은 선수별 기본 기술과 창조성, 팬 인지도, 성격, 페어플레이 등 7개 부분을 감안해 후보자를 결정했다. 박주영 등과 경합할 선수로는 아르헨티나의 떠오르는 셋백 리오넬 메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주최국 독일의 루카스 포돌스키 등이다. 나라별로는 신인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스위스가 발론 베라이 등 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잉글랜드가 3명씩이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독일, 가나,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토고가 2명씩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영·伊·한국·일본 등 테러위험 경기 21개 지목

2006년 독일 월드컵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월드컵 경기장의 안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 최신희(18일자)는 월드컵 전체 64개 경기 중 테러 위험이 있는 경기를 21개로 지목했다. 이 잡지는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AK)의 비밀보고서를 인용, 미국, 영국 등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 나라와 한국 등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들의 경기가 이슬람 테러조직의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일본, 체코 등은 이라크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안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승엽 역시 ‘승리의 사나이’

승리타점 7개 팀내 1위

‘4번 이승엽(30)이 때려야 요미우리 지이언츠가 이긴다’는 통설은 설(說)이 아닌 진리에 가까운 공식임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

전날 소프트뱅크 호크스전에서 삼진 3개를 당하며 4타수 무안타로 체면이 깎인 이승엽이 19일부터 벌어지는 라쿠텐 콜트 이글스와 방문 3연전에서 분발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바로 팀내 승리타점 1위이기 때문이다. 타점은 27개로 고쿠보 히로키(34개)에 이어 팀내 2위이나 승부를 결정지은 승리타점은 이승엽이 7개로 2위에 불과한 고쿠보를 앞섰다. 즉 18일까지 요미우리가 거둔 25승 가운데 7승이 이승엽의 방망이에서 결정됐다는 얘기. 승리타점 팀내 2위는 니오카 도모히로로 5개다. 이승엽의 승리타점 7개를 분석하면

홈런이 3방으로 역시 결정적인 순간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적시타가 2개, 내야 땅볼과 희생플라이가 각각 한 개씩이다. 이승엽은 3월31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시즌 개막전에서 1회 결승 2타점 중전 적시타로 첫 경기부터 홈 팬들에 화끈한 인상을 심어줬다.

지난달 21일 최대 라이벌 한신타이거스와 시즌 1차전에서 연장 11회 도요둠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끝내기 투런포를 작렬시켰다. 또 5월6일 야쿠르트전에서 1회 승기를 잡는 선제 우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지난 16일 소프트뱅크전에서 3-3이던 7회 다시 좌측 펜스에 꽂히는 영양가 만점의 결승 투런포로 4번 타자 이렇듯을 해냈다. ‘5월의 사나이’답게 이달 들어 승리 타점을 3개나 낚은 이승엽은 홈런포를 재가동, 팀이 선두를 질주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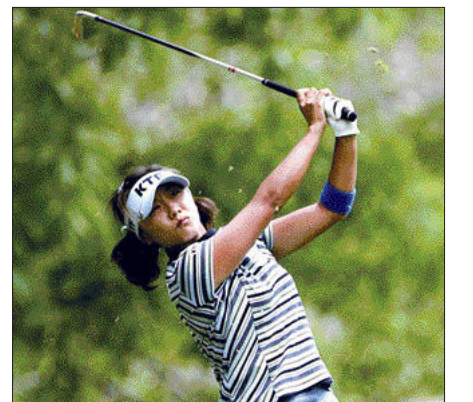
한희원 3년만에 우승컵 탈환 노린다

LPGA 사이베이스클래스 1R

3연타점 68타 공동선두

한희원(28·힐라코리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클래스 첫날 공동 선두에 올라 3년만에 우승컵 탈환에 파란불을 켜다. 한희원은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뉴요시 와이카길골프장(파71·6천161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연타점 68타를 쳐 나탈리 겔비스, 베스 바우어(이상 미국)와 함께 선두그룹에 들었다.

지난 2003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한희원은 비로 1시간20여분간 경기가중단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16번홀(파3) 보기가 아쉬웠을 뿐 흠없는 경기를 펼쳐 시즌 첫 우승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경기가 순연해 18번홀을 치르지 못한 신인 유선영(20)은 17번홀까



19일 열린 LPGA 사이베이스 클래스 대회 1라운드에서 김미현이 13번홀에서 티 샷을 한 후 공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 2연타점을 쳐 공동 4위, 역시 1개홀을 다 음남로 남긴 김미현(29·KTF)도 1연타포로 공동 9위를 달려 우승경쟁에 뛰어든 체비를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일(토) ▲K-리그 컵대회(성남-전남)(17:00·MBC ESPN) ▲프로야구(한화-두산)(18:00·KBS SKY SPORTS), (롯데-삼성)(18:30·MBC ESPN)

ESPN) ▲일본 프로야구(라쿠텐-요미우리)(17:50·SBS스포츠) 21일(일) ▲프로야구(한화-두산)(13:30·KBS SKY SPORTS, 14:00·KBS1), (롯데-삼성)(14:00·MBC ESPN), (KIA-LG)(13:50·SBS스포츠)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봉투교사, 보육교사, 육서원교사, 정발사업교사,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한 질과 양의 학습자료가 필요합니다. 곽내영고시학원은 우수한 교사진과 최신 교육자료, 그리고 철저한 관리로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사진이 최고야 할 때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과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장차욱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진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대한민국 경찰 드림팀 광주 상륙!!!

노랑진 경찰학원 그명성 그대로...

김재규 경찰학원 탄생

김재규 경찰학원 최고의 교수진

- *경찰학 개론: 김재규 교수
- *수사: 오수평 교수 *영 어: 오순아 교수
- *형법: 윤경근 교수 *형소법: 윤경근 교수

김재규 경찰학원 전문 시스템

- 기본이론(오전)+문제풀이(오후)+기초특강
- 기본반, 심화반 선별 맞춤수강, 전용 자습실 사용
- 다년간 경찰수험생들을 관리하고, 전문화된 학습 시스템

경찰공무원 멈추지 않는 합격신화!! 김재규 경찰학원 드림팀을 광주에서 직접 만나기 바랍니다.

www.police3112.com

경찰공무원의 꿈을 실현하는 곳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전남여고앞 236-3112

경찰직, 검찰직, 교정직공채 준비생 절호의 기회!!

법무부교정직특채 1,003여명 확정!!

2주완성 첫진도 개강 **이론반 6월 2일** **목요일** **문풀반 6월 1일** **목요일**

합격개강: 주말반 5월 20일!!!

형소법(주남공선생님) **토요일 17:00~20:50(4시간)**
교정학(김용철선생님) **일요일 09:00~12:00(3시간)**

기존 무등이론반 수험생들은 주말반 문제풀이(토요일)가 무료입니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문·왕·출·신 수석 승은 영보 **96.7** **6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을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광주 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 5월 1일 전문학원!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만이 당신의 합격을 앞당깁니다.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전남여고 건너편 ☎ 234-0234